

시인의 독특한 이력과 삶에 대한 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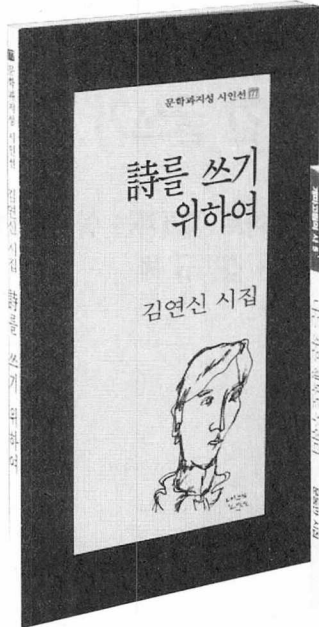
‘일하는’ 시인들이 펴낸 처녀시집 두권

이제는 더 이상 노동자가 소설 또는 시를 쓰고 책을 내는 것이 화제거리가 아닌 세상이다. 한편으로는 활발하던 현장 글쓰기도 주춤한 상태이다. 최근 나온 두권의 시집은 시인 개인의 ‘이력’ 면에서 색다른 시선을 끈다. 한사람은 ‘블루 칼라’이고 다른 한사람은 ‘화이트 칼라’인 차이점이 있기는 해도, 이들은 정규 문학 수업을 받지 않고 이른바 문단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을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한 두사람에게 이번 시집은 처녀시집이다.

《나는 작은 행복도 두렵다》(개마고원)의 문동만 시인은 생산적 노동자이다. 박노해, 백무산, 김해화 같은 의식이 고양된 노동자 시인의 계보를 잇는 시인임은 분명하지만, 정세훈이나 안만식 처럼 덜 각성된 듯하나 오히려 그것이 더한 감동을 주는 현장의 목소리도 낼 줄 안다. 앞선 시인들도 노래했던 고단한 노동 체험이나 아내와의 살가운 정을 형상화한 시보다는 존재의 근원을 탐구하는 시들이 문동만 시인의 개성적인 목소리로 들린다.

유난히 ‘사는 것’ 또는 ‘삶’을 이야기하는 시가 많은데, ‘뿔뿔에 빛을 쬐요/사느라고’(<쪽정이>에서)는 그 단적인 예로 부자간의 대화를 빌어 피폐한 농촌의 실상과 힘겹게 사는 삶의 정경을 동시에 보여준다. 또한 들녘에 핀 하찮은 꽃도 ‘살아보겠다고 피었으니’ 꺾지 않겠다는 다짐이나 고철 장수 노인네를 보고 회한을 느끼는 대목도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에 해당한다.

회절의 시대에 너무 곧아 부러지는 놈 한번 봤



으면 좋겠다는 시인마저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고민한다. 이것은 작은 행복에도 두려움을 느낄 만큼 세심한 마음의 무늬를 지닌 시인의 심성에서 연유한다.

김연신씨의 직업은 좀 독특하다. 아마 시인의 직업으로는 전례가 없을 것이다. 그는 선박 세일즈맨이다. 《시를 쓰기 위하여》(문학과지성사)라는 제목도 시인이 하는 일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시집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시에 관한 시 쓰기가 일상에서 시와 거리를 두고 있는 시인의 과도한 방어적식의 발로는 아닐는지. 아니면 소설쪽에서 한바탕 불어뿜던 소설가 소설이 시쪽으로 전염된 것이든가.

아무튼 김연신의 시를 파악하는 지름길은 바로 <시를 쓰기 위하여> 연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에게 시는 ‘뱃속이 부글부글 끓으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목구멍의 뿌리를 각 뒤집으면서 입술 밖으로 뚝 내 뱉어낸’ 것이다. 그렇다면 시집을 채우고 있는 시들은 김연신의 토사물인 셈인데 선언과는 별개로 토악질의 고통이 시에 배어 있지 않아 아쉽다. 다만 시를 삶 혹은 생존으로 치환하여 본다면 김연신 역시 존재의 무게를 고민하며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더욱 노래를 불렀어,/무슨 노래가 우리 가슴에 담겼다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지./새벽이 올 때 까지,/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우리의 날들이 올 때까지./아는 노래를 모두 불렀다면서,/아프게 자라나는 모든 것을 위하여’(<우리가 아는 노래는 모두 불렀어>에서).

80년대 문학논쟁의 와중에서 작가 신원주의는 계급 환원론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 역시 엄밀한 검토의 소산이라기 보다는 지도비평적인 다그침에 더 가까웠다. 지식인 문학의 위기를 넘어 문학 자체의 위기가 운위되는 지금, 위기의 타개책으로 다양한 계층을 문학으로 끌어들이는 일이 요청된다. 이는 섣부른 정치 지향을 위한 것은 결코 아닌 인간다운 삶을 매개하는 진정한 문학의 복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위기가 곧 기회 아니던가.

—최성일 기자

아래 흐를 전문출력센터

24시간 출력

삼화에서 하는 일

- 필름, 인화지, 레이저프린트 출력
흐를, 오토페이지, 훈민정음, MS워드, 페이지메이커 코렐 등 - 현존하는 모든 윈도우 프로그램
- PC로 입력한 자료 편집 출력
- 국내 최대의 漢字(16,000자) 및 고어 완벽 지원
- 모리사와 데이터 변환(맥, PC)

아직 조판을 외주에 의존 하십니까?

이제 손쉬운 단행본부터 사내에서 직접 조판을 시작해 보십시오. 귀사에 한 대의 컴퓨터라도 보유하고 계시다면 한푼의 투자없이 조판비를 반 이상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바로 지금 전화 주십시오. 기술적인 면 등 조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저희 삼화가 책임지겠습니다. 디스켓으로 입수되는 원고라면 이제 PC를 이용, 직접 작업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시설현황

- 출력기 3대 ● 레이저 3대
- 입력편집기 다수

삼화전산

전 화 : 263 - 2651~3
모 델 : 277 - 8097~8
하이텔 : sawh
상 담 강 중 욱 실장

주제의식 뚜렷한 어린이 과학시리즈물

공들인 그림과 전문가의 저술로 질 높여



동화나 학습서 일색이던 어린이 도서시장에 주제의식이 뚜렷한 시리즈물이 등장하고 있다.

다섯수레에서 펴내고 있는 《왜 그런지 정말 궁금해요》와 도서출판 보림에서 내놓은 《전통 과학 시리즈》는 그런 점에서 눈에 띄는 출판물이다. 이 두 시리즈물은 모두 과학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소재나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은 전혀 다르다.

《왜 그런지 정말 궁금해요》 시리즈는 영국에서 만들어진 책으로 아니타 가너리 외에 여러명의 작가가 쓴 내용에 루비 그린, 토니 케넌, 크리스 포시 세 명이 삽화를 그렸다. 이 책은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이 가질 법한 소소한 질문들로 가득 차 있어 아이들의 흥미를 끌어당긴다.

이번에 출간된 시리즈의 다섯째권 《지구의 나이는 몇 살인가?》와 여섯째권 《바닷물은 왜 짭까요?》는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지구의 나이는 몇 살인가?》는 지구 위에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자연현상, 예를 들면 지진·동굴·천둥·극지방의 생태계, 화산·산 등에 대한 33가지 질문과 답을 담았다. 《바닷물은 왜 짭까요?》는 바다의 모양, 바다에 사는 생물, 잠수함, 고기잡이와 같이 바다와 그에 관계된 과학기술 등을 설명한다.

반면 《전통과학시리즈》는 우리 전통 의·식·주·건축·문화 등 생활주변을 12개 분야로 나누어 우리 생활과 밀접한 소재들을 골라 역사적인 변천 과정을 보여준다. 그간 발간된 《비주얼 박물관》(웅진미디어), 《원도우》(한길사), 《그림백과 소

프트》(지경사)나 《왜 그런지 정말 궁금해요》 같은 과학시리즈물이 모두 외국 것이었는데 비해 이 시리즈물은 우리 손으로 만들고 내용도 전통과학을 다루고 있어 색다르다.

이번에 나온 《배무이》 《집짓기》 《옷감짜기》는 제목 그대로 5천년의 긴 역사 속에서 배와 집과 옷감이 우리 기후와 환경에서 어떻게 변천·발달하였는지 살펴본다. 그 결과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사소한 생활양식 하나하나도 우리나라만의 공간적, 환경적 특수성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고증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은 내용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이 시리즈의 그림은 올해 17회 어린이 도서상 일러스트레이션 부문 문체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두 시리즈물이 공통적으로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은 '어린이는 과학을 어려워하고 싫어한다'는 일반적인 통념을 뛰어넘고 있다는 점이다. 《왜 그런지 정말 궁금해요》 시리즈는 교육부의 의무교육정책관과 같은 교육전문가들의 감수를 받고 있으며 《전통과학시리즈》는 각각 건축학과 교수,

사회생활과 교수, 의류학과 교수들이 직접 집필을 맡아 전문성을 높였다. 사진을 보는 듯한 그림도 이 두 시리즈에 공통된 미덕이다.

—이현주 기자



▶ **시편은 시인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
이스라엘의 시편집/구약성서의 비판적 입문
블 오브래 지음/서인석 역주/A5판 2,600원

▶ **하느님의 정의와 분노**
예언자 아모스
서인석 지음/A5판 2,400원

▶ **歷史 안의 敎會(교회사 논문 선집)**
김성태 지음/A5판 3,200원

▶ **신약성서와 그 배경**
부활하신 주 그리스도의 복음
F. V. 필슨 지음/채취 옮김/A5판 1,600원

▶ **舊約聖書의 人間學**
한스 발터 볼프 지음/문희석 옮김/A5판 7,500원

▶ **聖書學 概論 II(유다이즘)**
베에르 그릴로 지음/제석봉 옮김/A5판 2,000원

▶ **고대 이스라엘 종교의 독창성**
C. F. 화이틀러 지음/안성림 옮김/서인석 감수
A5판 3,000원

▶ **세상과 인간을 위하시는 하느님**
알폰스 다이슬러 지음/박상래 옮김/A5판 3,000원

▶ **敎會史**
아우구스트 프란츠 지음/최석우 옮김/A5판 8,000원

《 신학 총서 中 역사 신학 》



본도출판사

본사: 0545) 971-0628 서울지사: 02) 266-3605
안양분도서원: 0343) 46-7066 본도책방: 02) 277-9129

시대의 징표를 함께 읽어 갑니다